

## 몽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 14:31).

:

무슨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꿈만 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 주께서 “이제 들었으니 가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몽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몽상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따로 앉으라”<sup>막 6:31</sup>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 그분을 당신의 꿈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몽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 14:31)

### 1. 꿈이 몽상이 되지 않도록. . .

챔버스는 계속해서 절망, 지루함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유혹인 ‘몽상’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일상에서 찾아오는 절망과 지루함 뿐만 아니라, ‘몽상’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몽상이 왜 유혹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란,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어떤 매력적인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들었으니 가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몽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꿈과 ‘몽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꿈과 몽상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나, 우리의 꿈이 몽상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몽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지만 행동하지 않을 때, 그 꿈이 몽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아프게 찌르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에게 찌르는 가시가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사인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2. 순종이 필요합니다.

챔버스가 견지하는 일관성 있는 신앙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꿈이 몽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챔버스가 자신의 삶을 빗대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챔버스가 사랑하는 아내 비디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의 10일 간의 동행이었습니다. 그 때가 6월 초였는데, 여행을 마치고 2개월이 지난 8월의 편지에 보면 비디에게 ‘결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11월에 약혼을 합니다. 당시 34살 이었던 챔버스에게 9살이나 어린 비디에게 청혼을 하고, 목사인 성직자가 신앙적 교제를 갖고 있던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무조건 청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자 주저하지 않고 청혼을 합니다. 어쩌면 그가 살았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챔버스와 비디는 함께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묵상 글에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욕망’과 하나님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완성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 때는 순종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수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곳을 향해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버리라’는 것이다.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삶을 걸고 주만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하게 하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

###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① 음성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주신 꿈을 몽상으로 만드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 때문입니다.
- ② ‘여기로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열쇠입니다.

**묵상 질문** 꿈을 꾸고 있는 당신에게 이제는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나요? 그렇다면 주저 없이 떠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묵상레시피 | 요한복음 20:11-18 + 요한복음 14:31

마리아는 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까? (11, 13절)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14절)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습니까? (15절)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까? (16절, 요10:3)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7절, 용어설명 참고)

울고 있더니(11절) (헬)클라이오 대성통곡하며 울다.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드러난다.

알지 못하더라(14절) (헬) 우크 에데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거듭하여 상황을 오해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르게 인지하기 전,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지식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나를 불들지 말라(17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이젠 다시 떠나지 않을 확실한 양태라고 오해한 까닭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마리아는 더 이상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자리를 떠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

### 짧은 기도

사랑과 믿음이라는 식물은  
기독교와 묵상을 먹고 자라지만  
실천을 통해 강해집니다.

제가 기독교와 묵상의 공간 안에만 갇히지 않도록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저의 행복감이  
저의 만족감이  
아버지께서 승인하실 수 있는  
참된 것이 되게 하소서.

김영봉\_참된 행복 중에서(목사, 신학자, 저술가) 「사귐의 기도」 119